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207>

JCCT 2018-11-25

##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Self-Directed Learn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ies

최민경\*, 김진숙\*\*

Min Kyoung Choi\*, Jin Sook Ki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학 중인 대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연령이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하위요인의 학습자신감, 학습열정, 학습책임감 순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연령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학습책임감,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순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 교육 현장에서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학습 지원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self-directed learning o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For this purpose, 341 undergraduates were targe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self-directed learning,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school life satisfaction, a sub-factor of self-directed learning, all of gender, grade, and age affected. In addition, sub-factors such as study confidence, study passion, study responsibility seemed to affect positively significantly in order.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 skills of self-directed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 in gender, grade, and age.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study responsibility, study passion, and study confidence in ord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ies are closely related to self-directed learning. This is significant in that to revitalize institutions such as educational service, study support for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s development in education field at the university, etc. are required.

**Key words** : Self-Directed Learning, School Lif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ies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중독융합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7월 27일, 수정완료일: 2018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2일

Received: July 27, 2018 / Revised: August 28, 2018

Accepted: September 22, 2018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nny Univ, Korea

## I. 서 론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중·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생활과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수동적인 학습에 비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에 효과적이다. 특히 21세기 사회에 들어오면서 자기주도 학습은 비형식교육에서는 물론 형식적인 교육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1]. 하지만, 정작 한국의 대학생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며, 동료학생이나 교수 등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2].

실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2015)에서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20~24세의 대학생 중 61.4%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면 진로문제, 성적문제 외에도 외로움, 고독, 교수와의 관계 등의 정서 및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아도 자신의 학습을 위한 필요를 진단하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밝히고 적절한 학습의 전략을 선정, 적용하여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이다[3].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본인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유지를 위하여 교사 및 교우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전반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상태이다[4].

대인관계능력이란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및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

해 나타내는 사고, 정서, 행동양식으로 대학생 보편적인 심리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성취감을 느끼며, 학교생활 적응력, 진로 결정, 구직, 인간관계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 과업은 후에 사회인으로써 겪어야 하는 과업의 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교수학습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 간에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대인관계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420명의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2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피검자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 연구에 동의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하게 작성한 79부를 제외하고 34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자기주도학습

학습자 변인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예측력 분석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척도를 Long의 메타인지를 기초로 허남진[1]이 개발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 영역 학습호기심(1~5), 학습열정(6~10), 학습자신감(11~18), 학습책임감(19~26), 학습탐구심(27~30)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척도의 응답방법은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를 기록하도록 하는 4단계 Likert식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학습호기심 .728, 학습열정 .749, 학습자신감 .795, 학습책임감 .729, 학습탐구심 .767로 나타났으며 전체문항은 0.948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만족도 검사도구는 김미경[6]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보완한 송희숙[7]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6개의 하위영역 학교생활(17~20) 4문항과 학교행사(11~13) 3문항, 교수와의 관계(4~7) 4문항, 교우관계(1~3) 3문항, 규칙준수(8~10) 3문항, 학습활동(14~16) 3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에 이르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0으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능력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평가를 위하여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Reis[8]가 개발하고 김창대, 김수임[9]이 번안한 대인관계능력척도(Inters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인 관계 능력 척도는 처음 관계 맺기, 권리 주장, 자기 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 다루기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까지의 범위 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에서 유능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6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대상자의 통계적 자료 처리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대인관계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자기주도학습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만족도간에는 .693만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는 학습호기심 .527, 학습열정 .620, 학습자신감 .648, 학습책임감 .571, 학습탐구심 .388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1	2	3	4	5	6	7	8
<b>1. 자기 주도학습</b>	1.00							
2. 학습 호기심	.809* **	1.00						
3. 학습열정	.835* **	.793* **	1.00					
4. 학습 자신감	.857* **	.591* **	.644* **	1.00				
5. 학습 책임감	.854* **	.644* **	.612* **	.627* **	1.00			
6. 학습 탐구심	.676* **	.402* **	.422* **	.487* **	.515* **	1.00		
<b>7. 학교 생활만족도</b>	.693* **	.527* **	.620* **	.648* **	.571* **	.388* **	1.00	
<b>8. 대인 관계능력</b>	.566* **	.423* **	.467* **	.466* **	.541* **	.363* **	.564* **	1.00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자기주도학습과 종속변수인 대인관계능력 간에는 .566만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능력 간에는 학습호기심 .423, 학습열정 .467, 학습자신감 .466, 학습책임감 .541, 학습탐구심 .363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 간에는 .564만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

도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주도학습은 학교생활만족도에 .693만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잘 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설정된 본 회귀모형은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서 47.9%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 2.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2.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생활만족도			
	B	SE	$\beta$	t
자기주도학습	.816	.046	.693	17.701*
$R^2$	.480			
Adjusted $R^2$	.479			
F	313.32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은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소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인 학습호기심과,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학습책임감, 학습탐구심을, 통제변수로는 대학생의 성별과 학년, 연령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P < 0.001$ )과 학년( $P < 0.01$ ), 연령( $P < 0.001$ )이 모두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학습열정과 학습자신감, 학습책임감이  $p < 0.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열정이 높을수록, 학습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습책임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습자신감( $\beta = .314$ )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습열정( $\beta = .307$ ), 학습책임감( $\beta = .208$ )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학습호기심,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학습책임감, 학습탐구심)로 설정된 본 회귀모형은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서 52.2%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 3.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소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 Influence of sub-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생활만족도			
		B	SE	$\beta$	t
통제변수	성별	.120	.037	.141	3.231**
	학년	.054	.025	.153	2.178*
	연령	-.043	.012	-.258	-3.552**
자기주도학습	학습호기심	-.005	.057	-.005	-.089
	학습열정	.281	.056	.307	5.030***
	학습자신감	.311	.056	.314	5.593***
	학습책임감	.225	.061	.208	3.675***
	학습탐구심	-.016	.036	-.021	-.446
$R^2$		.533			
Adjusted $R^2$		.522			
F		47.352***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성별: 0=여학생, 1=남학생)

3. 자기주도학습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4는 자기주도학습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기주도학습은 대인관계능력에 .566만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기주도학습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on Interpersonal Ability

독립변인	종속변인			
	대인관계능력			
	B	SE	$\beta$	t
자기주도학습	.438	.035	.566	12.652***
$R^2$	.321			
Adjusted $R^2$	.319			
F	160.074***			

\*  $p < .05$  \*\*  $p < .01$  \*\*\*  $p < .001$

즉, 대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능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설정된 본 회귀모형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해서 31.9%의 설명력을 갖는다.

Table 5는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소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인 학습호기심과,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학습책

임감, 학습탐구심을 투입하였고, 통제변수로는 대학생의 성별과 학년, 연령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에서는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학습열정과 학습책임감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열정이 높을수록, 학습책임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소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nfluence of Sub-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on Interpersonal Ability

독립변인		종속변인			
		대인관계능력			
		B	SE	$\beta$	t
통제변수	성별	.005	.029	.010	.188
	학년	.023	.020	.098	1.174
	연령	-.011	.009	-.101	-1.166
자기주도학습	학습호기심	-.009	.044	-.015	-.208
	학습열정	.099	.044	.164	2.258*
	학습자신감	.085	.044	.131	1.956
	학습책임감	.244	.048	.344	5.099***
	학습탐구심	.032	.028	.063	1.155
$R^2$		.339			
Adjusted $R^2$		.323			
F		21.239***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성별: 0=여학생, 1=남학생)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습책임감( $\beta = .344$ )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학습열정( $\beta = .164$ ), 학습자신감( $\beta = .131$ ), 학습탐구심( $\beta = .063$ )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학습호기심,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학습책임감, 학습탐구심)로 설정된 본 회귀모형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해서 32.3%의 설명력을 갖는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재학 중인 대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자기주도학습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만족도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생활만족도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기주도학습은 종속변수인 대인관계능력 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능력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 연령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학습책임감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이 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힌 노영현[10]의 연구와,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이 자기주도학습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박주연[11]의 연구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연령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학습책임감,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기술이 높게 나타난 노미애[12]의 연구와 근로자의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사람일수록 팀 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결과의 조대연[1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던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인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학습책임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주도학습의 하위요인인 학습열정과 학습책임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시기가 직업인으로 들어가는 준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여가를 통한 사회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결과들은 미래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국사회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입시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는 관계로 자기주도적 생활방식보

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이 청소년기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은 비로소 이 종속 관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활은 지금까지의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엮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을 잘 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학교 내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과에 맞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과의 특성과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대인관계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발전을 기대한다. 또한, 대학교는 이들에게 주체적인 생활양식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Nam-Jin Huh, "An Analytical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 on Learners' Variable", Graduate School of Hong IK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5
- [2] Han-Saem Park, "study on the process of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a parental divorce :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4
- [3] Ju-Yeun Park, "Relationship between Self-K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Self-Concept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Kwand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4] Sung-Ho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Emotional Leadership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ctivity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5] Geun-Ha Hong, "study on leisure satisfaction and collegiate-life satisfaction by types of circl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 [6] Mi-Kyung Kim,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Determinants of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7] Hee-Sook Song, "study on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high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school lif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8]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 No.10, pp.1-79, 1989
- [9] Chan-Tae Kim, Soo-Im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Institute, Vol.35 No.1, pp.83-95, 2001
- [10] Young-Hyun Roh,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Instructional Leadership and the Motivation for Learning in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1] Ju-Yeun Park, "Relationship between Self-K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Self-Concept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Kwand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12] Mi-Ae Rho,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f college students with high self-directed learning",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3] Dae-Yeon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ion in learning and interpersonal skills within teams",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al Issues*, Vol. 23, pp.223-242, 2005